마음과 세상은 접촉조차 불가

(에스겔 44:1~31)

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3.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과 세상은 접촉조차 불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과 세상은 접촉조차 불가'
본문에서는 동쪽 문 폐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따르면 왕조차도 성전의 동쪽 문으로는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동쪽 문 안쪽에 있는 현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남쪽 문이나 북쪽 문을 통해 들어와야 했고 제사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쪽문의 폐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도 힌두교의 라마크리슈나 미션 소속의 승려가 뉴욕출신의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의 주제는 '접촉과 연결'입니다. 접촉과 연결이라는 강의를 마친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읽기는 그렇고 대화의 일부를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기자가 접촉과 연결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자, 승려는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은 몇이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난 것은 언제인지,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지는 언제인지 등 별 관련성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한참이나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승려는 말했습니다. "내 질문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네. 하지만 이것이 그대가 질문한 접촉과 연결에 대한 답이라네. 그대는 아버지와 접촉해 왔으나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네. 연결은 존재와 존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함께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대의 형제자매도 서로 접촉하고 있지만 연결은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 류시화 씨는 이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보태어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결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망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쉽

게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다고 믿을 뿐 접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혹은 휴대폰으로 쉼 없이 문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연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오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실패는 쉼 없는 접촉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인다운 통찰이 돋보이는 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접촉과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육체로는 끊임없는 접촉이 일어납니다. 꼭 손과 손이 닿고 옷자락이 스쳐야만 접촉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동료라는 관계가 접촉을 만들어냅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일을 하고 아내가 가정을 돌볼 때에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접촉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연결은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로 든 승려는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밥을 먹고, 서로를 보살피고,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연결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6~37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았던 승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결을 중시하시기는커녕 기존의 연결조차 끊으라고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승려나 류시화 시인은 문제를 바로 보았습니다. 접촉의 시대 속에서 연결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가족이 마주보고 밥을 먹는 접촉은 일어나지만 대화는 하지 않고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스마트폰은 세상과 연결을 해주는 기계인데 정작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과 손을 맞잡고 식사를 같이 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이 영적으로 옳은가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접촉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이 끊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듯이, 영적으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연결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힌두교의 승려나 류시화 시인이 말하는 대로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연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손을 맞잡고, 보살피며,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연결이 아닌 야합이고 작당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연결되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는 간접적인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직장동료를 붙잡고 계심을 통해 연결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직장동료와 직접 연결이 되어서는 제대로 된 연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계속해서 시도해왔고, 끊어진 연결에 대해서

는 맺어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견 옳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세상이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마음의 연결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스마트폰에 의해 사람들의 연결이 끊어진 요즘 시대가 진리에 입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희망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람은 직접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결이란 곧 마음의 접촉입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은 하지만 마음의 직접적인 접촉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거치는 연결만이 진정한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세상은 접촉조차 불가'라는 제목대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접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대상들과의 접촉과 연결은 반드시 끊어져야만 합니다.
연결의 시대로 불리는 현대는 오히려 참 접촉과 참 연결의 의미를 잃고 혼돈 속에 빠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이러한 혼돈을 밝히는 접촉과 연결에 질서의 빛을 제시해줍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환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한 까닭은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광은 영화로운 광채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등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수석합격을 하신 것입니다. 수석합격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합격시키는 결정권자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가치체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돈, 권력, 인기, 명예, 가족, 건강 등 그리고 오늘 예화에서 등장한 접촉과 연결이 상징하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불합격처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의 수석합격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동쪽 문을 폐쇄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동쪽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실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민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한 마음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쪽 문은 설령 왕조차도 들어올 수 없게 닫아걸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아걸었다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지도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 성전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어 없어졌지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성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전이기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의 동쪽 문을 폐쇄한다는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건축물의 형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가로 세로 약 275m의 정사각형 모양임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본체가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성소의 출입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쪽을 지성소 벽으로 하고 있고 지성소 앞쪽으로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앞쪽으로 성소의 출입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에 성전의 분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밤새 켜있던 등잔대의 불을 끕니다. 그러면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 떠오르는 태양빛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휘장에까지 닿아서 환하게 밝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있습니다. 법궤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있든 없든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환상을 통해 선민 각 개인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등잔대가 밝히고 있던 불이 꺼지면 아침에는 성소가 태양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 밝은 광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민들의 마음에 들어옴을 상징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마음의 지성소는 바로 수석합격자를 결정짓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가 햇살로 가득하게 되듯이,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담고 있다면 돈이 태양이 됩니다.

모든 인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서 수석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태양빛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빛 아래에서 삶의 모든 대상들과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마음의 태양입니다.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가 태양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가 태양빛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자녀라는 빛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몸이 자녀와 떨어져있는 동안에도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자녀와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의 의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꿈꿉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마음의 태양이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돈이라는 태양빛이 가득 들어온 사람은 그 빛으로 만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태양빛이 가득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만물을 바라보고 접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때에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아직 망하지 않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출입문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지성소를 등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 이외의 태양으로 마음을 채우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쪽 문의 폐쇄는 영원히 마음속을 채울 영광의 빛의 주인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하라는 요청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태양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음의 빛이 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힌두교 승려의 문제제기는 정확합니다. 몸으로 접촉은 하지만 마음의 접촉 즉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마음의 접촉이 연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체 누구와 마음의 접촉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과 마음의 접촉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7절을 보면 할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마음의 할례 또한 언급됩니다. 몸의 할례가 있는 선민조차도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바로 마음의 접촉할 대상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마음의 접촉은 육체의 접촉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접촉이 없으면 육체로 접촉하는 동안에도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가 언급된 이유는 육체로 온갖 대상과 접촉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마음에서까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힌두교 승려나 류시화 시인의 지적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육체로 접촉하는 어느 것과도 마음이 접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끊으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주보고 접촉하는 동안에 대화를 하고 식사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배우자와의 접촉을 끊어내고 연결을 막아야만 합니다.

힌두교 승려의 일화나 류시화 시인의 이야기에는 공감할만한 인간미가 넘쳐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의 블로그를 보아도 이 글을 인용하며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연결은 야합이고 작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루어지는 접촉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어낼 때에 비로소 진정한 연결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된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휘장까지 빛이 들어와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마음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대상과도 접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구분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

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관한 언급은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만민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복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습니다. 언약의 체결입니다. 몸의 할례는 곧 마음의 할례를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으로는 세상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대면하고 있을 때에도 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배우자를 접촉하고 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배우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관점은 세상 모든 대상에 대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로 접촉하는 것들이 마음에 다가올 때에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몸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몸으로 접촉하는 것들이 마음에까지 접촉하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올라 열려진 성소의 문으로 들어와 가득 채우고 지성소의 휘장까지 비치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선민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육체로 접촉하는 대상들의 마음까지 접촉하여 연결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빛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대상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러한 태양이 될 뻔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아내 사라가 그러한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아내 사라의 빛 아래에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았을 것이고, 이삭을 낳은 후에는 아들이라는 태양빛 아래에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몸으로 접촉하고 있는 이삭에 대해서조차 마음으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

들의 기업이 되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으로 접촉하는 대상을 마음으로도 쉽게 접촉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접촉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입니다. 빈 마음이 자녀로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녀와의 연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태양빛이 되어서 마음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뿐이심을 가르쳐주심을 통해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온 동쪽 문이 폐쇄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돈도 배우자도 자녀도 내 마음에 들어와 태양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동쪽 문이 폐쇄된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제사장과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세상에서 기업으로 여길 것이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당연히 내 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집에 대해서 마음이 접촉하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내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집이 주는 안정감이 마음의 태양빛이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집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마음을 비추는 태양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대상은 재산이나 지위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몸조차도 마음에서 접촉이 끊어져야만 합니다. 동쪽 문에서 들어온 태양빛이 성소를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태양이 되셔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연결된 나의 소유이고 나의 기업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집이나 재산도 관리하고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예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육체로 접촉할지언정 마음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접촉하시며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몸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대해서는 배우자조차도 접촉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 몸조차도 마음에 대해서는 접촉 불가입니다. 오직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관장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육체로 만나는 세상과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 연결되지 않고 마음이 직접 세상과 연결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교회의 상태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의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 집안문제,

건강문제 등 육체를 통해 만나는 세상의 대상들과 마음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설교의 주제는 일 년 내내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의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매 장이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낯설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과 세상은 접촉조차 불가'라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은 육체로 만나는 세상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태양빛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이 세상 삶을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에 대해서조차 마음이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육체를 통해 만나는 어떤 대상과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세상의 접촉은 절대로 불가입니다. 그러기 위해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는 접촉과 나를 망하게 하는 접촉, 나를 살리는 연결과 나를 죽이는 연결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이 육체로 접촉하는 그 어떤 세상의 대상과도 접촉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태양이 되시고 나를 채우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